



스위스재보험, 2008년 3 분기에 3 억 4 백만 스위스프랑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 2008년 1 분기부터 3 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은 8 억 8 천 4 백만 스위스프랑 주당순자산은 74.16 스위스프랑을 각각 기록

Contact: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Corporate Communications, London
Telephone +44 20 7933 3445

Corporate Communications, Asia
Telephone +852 2582 3660

Corporate Communications,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663

Investor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4444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2008년 11 월 4 일, 취리히 – 스위스재보험은 2008년 3 분기에 3 억 4 백만 스위스프랑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세계 금융시장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스위스재보험은 2008년 1 분기부터 3 분기까지 8 억 8 천 4 백만 스위스프랑의 순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2008년 9 월 기준 주당순자산은 74.16 스위스프랑이다. 스위스재보험은 여전히 견실한 대차대조표와 매우 우수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2008년 3 분기에 3 억 4 백만 스위스프랑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어려운 시장상황에서도 스위스재보험은 2008년 1 분기부터 3 분기까지 8 억 8 천 4 백만 스위스프랑의 이익을 기록했다. 스위스재보험의 2008년 3 분기 주당순이익은 -0.93 스위스프랑이며, 2008년 1 분기부터 3 분기까지의 주당순이익은 2.66 스위스프랑이다. 연간으로 환산한 2008년 3 분기 자기자본수익률은 -4.9%*, 2008년 1 분기부터 3 분기까지는 4.3%*로 나타났다.

신중한 투자전략으로 스위스재보험의 2008년 3 분기 자기자본은 241 억 스위스프랑을 기록, 2008년 2 분기 대비 불과 6% 감소하는데 그쳤다. 2008년 6 월말 77.65 스위스프랑이었던 주당순자산은 소폭 감소, 2008년 9 월말 기준 74.16 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재보험에 대한 고객수요가 현저하게 증가함에 따라 스위스재보험은 현재 자사주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이다. 2008년 10 월말 기준 스위스재보험은 총 77 억 5 천만 스위스프랑 규모의 자사주매입 프로그램의 51.2%를 완료했다. 2010년 4 월까지 자사주매입 프로그램 이행을 완료하겠다는 스위스재보험의 계획은 여전히 달성 가능하나, 이는 자본시장의 안정화를 비롯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부문의 사업기회 창출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손해보험 부문 영업이익은 9 천 9 백만 스위스프랑으로 감소했으며, 여기에는 비교적 높았던 자연재해 클레임 뿐 아니라 투자수익 감소

* 수정

와 선별적 언더라이팅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현손익을 제외한 2008년 3분기 영업이익은 동년 2분기의 18억 스위스프랑에서 7억 1천만 스위스프랑으로 감소했다. 대규모 자연재해로 부터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재보험의 2008년 3분기 합산비율은 99.8%(할인을 적용후 97.6%), 2008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합산비율은 96.4%(할인을 적용후 94.4%)로 나타났다. 스위스재보험은 효과적인 보험보장을 통해 자연재해클레임 증가의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스위스재보험은 주주가치 최대화를 위해 신중한 언더라이팅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시장경화 현상이 가시화되면 스위스재보험은 손해보험 부문에 자본을 재투입 할 예정이다.

스위스재보험은 2008년 9월 23일 허리케인 아이크 관련 순보험금 지급액 추산치를 2억 5천만 달러로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중서부지역 및 해외 에너지 부문과 관련, 보험손실액이 예비 추정치를 초과함을 암시하는 여러 지표가 나타남에 따라 스위스재보험은 허리케인 아이크 관련 순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자사 추정치를 3억 1천 5백만 달러로 수정했다. 허리케인 구스타프 관련 보험금 지급액 추정치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스위스재보험의 허리케인 구스타프와 아이크로 인한 전체 순보험금 지급액은 약 3억 6천 5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 부문의 영업이익은 2008년 3분기 -6억 1천 4백만 스위스프랑으로 감소했다. 여기에는 금융시장 위기와 북미지역 사망률 증가로 인한 5억 7천 2백만 스위스프랑의 순실현투자손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체적으로 2008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사망률 추이는 예상치와 일치했다. 이 기간 동안 스위스재보험은 3억 9천 2백만 스위스프랑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실현투자손실을 제외한 2008년 3분기 영업이익은 2008년 2분기의 8억 6천 8백만 스위스프랑에서 감소한 2천 2백만 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

연간으로 환산한 2008년 3분기 투자수익률은 1.6%, 2008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투자수익률은 3.4%로 나타났다. 스위스재보험의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미)실현 시가평가 손실 및 헤징(hedging) 비용 등이다. 스위스재보험은 양질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포트폴리오 중 50% 이상을 현금과 단기에치금, 재무부 발행의 단기채권 또는 정부보증 금융상품에 분산투자되어 있다. 2008년 3분기에 스위스재보험은 헤징을 통해 기업여신에 대한 익스포저를 크게 줄였다. 이와 유사하게 유통주 포트폴리오 또한 처분이나 헤징을 통해 그 규모를 감소시켰다.

구조화 신용디폴트스왑(CDS)에 대한 2008년 3분기 미실현 시가평가 손실은 2억 8천 9백만 스위스프랑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재보험의 CEO 자크 애그랭(Jacques Aigrain)은 “스위스재보험은 견실한 자본기반과 탁월한 분산투자 그리고 전문 인력이 결합, 현재 시장의 전개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쟁적우위관계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높은 재무건전성과 안정성을 갖춘 스위스재보험은 오늘날의 금융시장 혼란으로부터 기회를 잡고자 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추가적 조력 및 재보험 지원을 도모하는 고객에게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저희를 찾고 있으며 저희는 이러한 니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스위스재보험의 주당순이익 10%와 자기자본이익률 14% 달성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편집자 주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세계 최대의 다각화된 글로벌 재보험사 중 하나로 전세계 25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A-’를, 무디스(Moody's)로부터 ‘Aa2’를,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A+’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913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9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그 지역 본부는 홍콩에 있다. 2006년 스위스재보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첫 사무소를 개설한지 50년을 맞이했다.